

광주시·유가족 “사퇴 능사 아냐… 책임 이행”

〈HDC현산 회장〉

광주시장 “사고 수습 전면 나서라”
피해자 가족협회, 실질적 대책 촉구
정부 차원서 전문가TF 구성 주문

정동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수습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와 유가족 협회도 유감을 표했다.

정회장은 이날 사고 수습과 관련해 “광주시, 정부기관과 힘을 합쳐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입주예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며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규 회장의 사퇴는 면피성이다'며 '아파트 완공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스

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강구 할 것과 “사고 발생 1주일 만에 사고 현장도 아닌 서울본사에서 사퇴 발표를 하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울분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 협의회도 1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 날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총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고개 몇 번 숙이는 사

과는 ‘가식’과 ‘쇼’에 불과하다”며 “물러나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면피”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 뒤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며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고 수습과 실종자 구조에 협

산을 배제하고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

구했다.

사고 수습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구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조에 비협조적인 만큼, 현산을 구조작업에서 배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TF를 구성해 신속한 구조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실인자에게 피해자 치료를 맡기고 있다”며 “가족이 소리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는다. 실제 가족들이 제품 팔아 제공한 구조 안을 반영해 구조하는 실정이다. 문제도 해결 못하는 회사에게 어떤 구조를 맡기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구조를 담당하는 한 각 종 문제점이 가려질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HDC현산은 정동규 회장 사퇴와 함께 재시공, 전체 현장 안전진단, 구조적 결합 보증기간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신뢰 회복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그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설맞이 ‘비-뷰티데이’

부산시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2022 설맞이 온라인 비-뷰티(B-beauty)데이’를 개최한다.

‘비-뷰티(B-beauty)데이’는 지난 2019년부터 부산 화장품·뷰티 기업의 판로 확대와 우수한 화장품을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원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의 대표 화장품 기업 27개사가 참여한다.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부산=장병호 기자

보성세계차EXPO 온택트 전환

보성군은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EXPO’를 비대면 온택트 행사로 전환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당초 보성군은 국제행사 규모의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EXPO’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외국이 참여가 제약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다.

온택트로 개최됨에 따라 실질적인 차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보성(전남)=문상환 기자 m8527188@

울산시, 中企 수출 확대… 지원시책 수립

4개 분야 22개 사업

한다.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Ulsan Export Plaza)’도 개최한다.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초보·유망·강소 기업으로 나누고, 기업의 수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수출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여 내수 기업이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해외 물류비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해외 구매자 지원, 다문화 가족 수출지원단 등도 확대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23억 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된다.

세부 사업을 보면, 울산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7회 예정, 대면·비대면 병행)한다.

또한,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6회 예정, 대면·비대면 병행)

/울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접수 시작일인 1월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원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

이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광주시,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추진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여가부 운영… 익산시와 경쟁
국립 거주형 치료·재활시설

광주광역시는 호남권역(광주, 전남·전북, 제주) 내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국립 치료·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현재 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

인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영남

권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2개소

등이 운영중이지만, 접근성이 한계로

호남권역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9년 지역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태스크포스(TF)팀의 제안을 시작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여성가족부 건립 지속 건의, 국비 확보 노력,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 요청 등 사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여성가족부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북 익산시가 유치전에 참여하면 서 광주와 익산시 대상 공모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한 공모 선정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 초 공모평가기준 시찰을 시작으로 1개월간 공모제안서 작성기간 부여, 3~4월 심사를 거쳐 6월 중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기간 6개월 연장

전남 무안군이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임대료 감면 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 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영암군, 농업창업 지원 신청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상담할 수 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전남카트경기장서 짜릿한 질주 즐겨요”

신규 레저카트 23대 구입

전라남도는 전남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경기장의 레저카트가 10년 이상 노후해 체험만족도가 떨어짐에 따라 신규 레저카트 23대(1인승 10대·2인승 13대)를 구입, 1월부터 짜릿한 질주 본능을 선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카트는 원발 브레이크와 오른발 액셀 페달로 작동하는 양발 운전으로 이용객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규 구입 카트는 브레이크

작동 시 엑셀이 중단되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회용 위생모자, 미끄럼방지 장갑, 마스크 등 3종 세트를 제공,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카트장 주변에 가족과 함께 할 체험·문화공간인 자동차 복합문화단지를 올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최종 운영 점검 중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